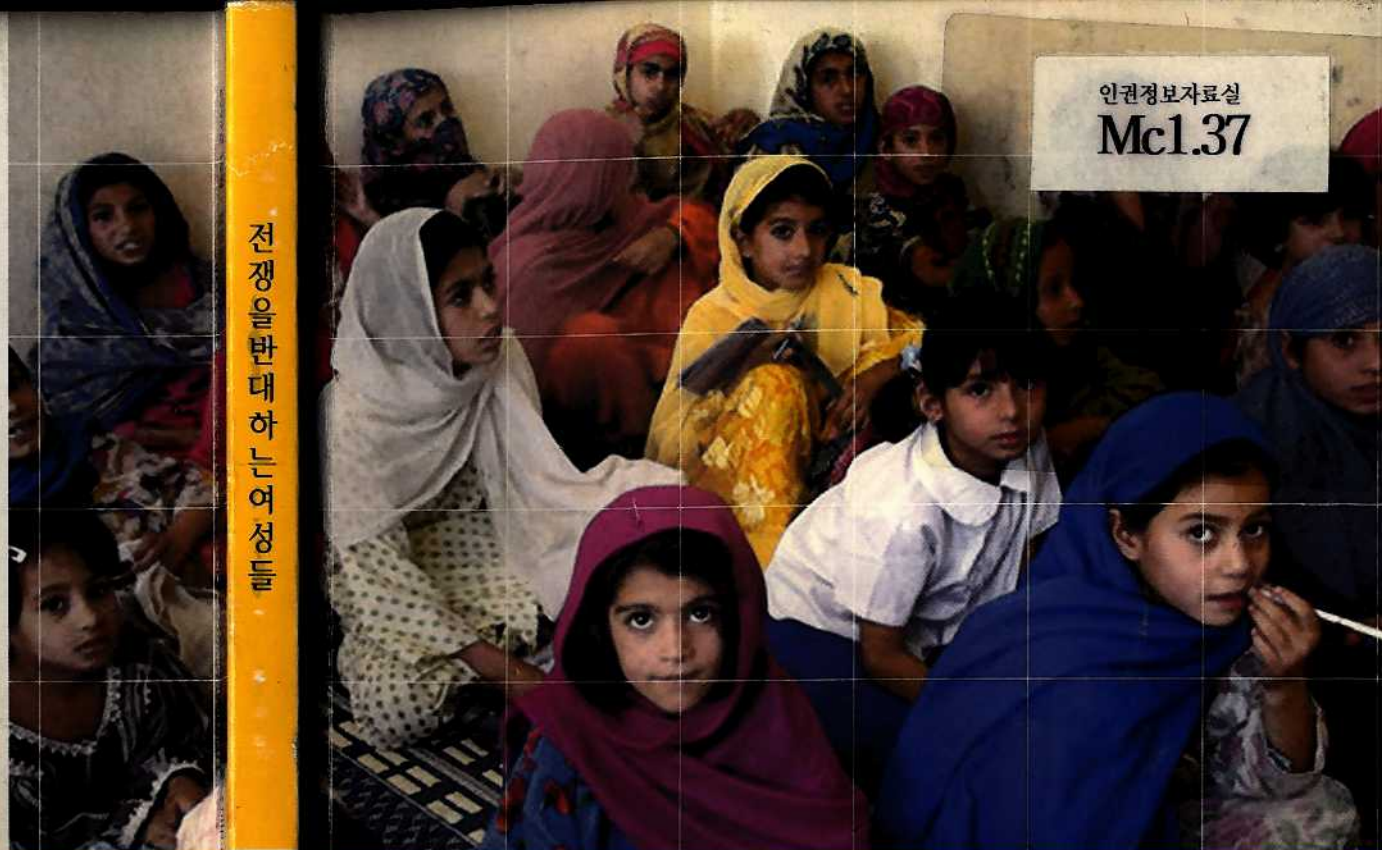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Mc1.37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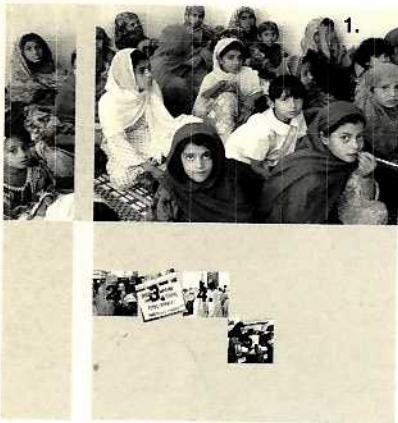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



전쟁이
인권정보자료실
Mc1.37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 (Women Against War)
www.kwaw.org



표지사진설명

1. 수업중인 아프간 소녀들
2. 부르카를 쓴 아프간 여성
3. WAW의 반전피켓
4. 아프간 소녀들의 수업 장면
5. WAW의 1010 건널목 시위

정당한 전쟁이란 없다

불과 몇 달 전, 전세계인의 입에 가장 자주 오르내리던 '전쟁'이란 말은 이제 다시 일상 밖으로 사라졌다. 곳곳에서 일어났던 반전의 돌결도 가라앉은 지 오래다. 그렇게, 전쟁은 늘 기억되기보다 잊혀져왔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둘러싼 이야기들 중 가장 많이 거론되던 것이 '정당성 여부'와 '명분론'이었다. 전쟁반대를 외치던 사람들 중에도 적지 않은 이들이 "명분 없는 전쟁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전쟁을 방관하던 누군가는 "미국으로 인해 어차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있다면, 북한 대신 차라리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래도 북한이 아닌 게 어디냐" 라며 다행스러워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어떤' 전쟁은 되고, '어떤' 전쟁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는 이라크 전쟁 때와 상황이 달랐다. 테러가 먼저 일어났으니 '당한' 미국은 전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것이 부시 행정부의 입장만은 아니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9.11 사건의 유가족들은 그런 식의 '보복'을 원하지 않았으며 아프간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 역시 전쟁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들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아프간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아프간 여성들을 해방시켜줄 것이라고 말하며, 그 잔인한 폭격을 정당하게 포장했다.

어떤 전쟁이든지 정당성을 따지고 명분을 찾는 것은 전쟁의 허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선이다. 그것은 전쟁을 원하는 자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것일 뿐이다. '정당한 전쟁'이란 없다. WAW의 눈에는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하면서 내세웠던 '보복 전쟁'의 논리나,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내세웠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장할 '예방 전쟁'의 논리가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결국 미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수많은 민간인들에게 폭력을 가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인권을 위한 전쟁'이라고 이름 붙이기 가장 좋은 것은 아마도 북한에 대한 공격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도, 이라크도, 아프간도, 전쟁으로 그들의 특정 지도자나 정권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그들에게 갑자기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인 사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내부적인 노력과 움직임

입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 변화를 위해 내는 목소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과 국제 사회의 몫이다. 전쟁을, 폭탄과 총에 맞아 죽어 가는 아이들을 위한, 전쟁시 항상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는 여성들을 위한, 더 심하게 억압받고 침묵해야 하는 소수인종, 장애인, 성 소수자들을 위한 '해방구'라고 이름 붙일 수 없다. 전쟁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더 큰 폭력과 차별이다.

WAW는 그동안 전쟁의 실체를 밝히고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자들의 논리가 가진 허구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쟁을 직접 경험한, 전쟁이 만들어내는 차별과 폭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은 그 이야기들, 우리가 알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시점에 자료집을 내리는 이유는 전쟁이 그냥 그렇게 잊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쟁이 눈앞에 닥쳤을 때만 반짝 외치는 것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은 여성으로서 전쟁을 반대하는 것의 의미를 고민하고 짚어 본 글들이다. 2장은 주류 언론에서 전쟁의 진실을 가리고 왜곡해온 점을 지적하면서, 전쟁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글을 담고 있다. 3장에서는 그동안 국가와 민족을 둘러싼 이야기 안에서 배제된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한편, 4장에서는 다양한 위치에서 소수자의 시선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들을 만날 수 있다. 5장은 세계 여러 나라 여성들의 반전 움직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그간의 WAW 활동을 정리해 보았다.

그동안 전쟁이나 평화,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언제나 남성의 것이었다. 여성과 소수자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은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거나, 흩어져 버렸다.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WAW는 그러한 글들을 모아보았다. 전문성 여부를 떠나 진실한 목소리들, 묻혀왔거나 들으려 하지 않아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들을 담은 이러한 작업들을 앞으로도 WAW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2003년 6월 1일

WAW 편집팀

머리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

1. 여성이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조순경) ... 7
- 전쟁과 여성(김엘리) ... 14
- 하나의 전쟁, 수많은 전쟁'들':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보복전쟁(시타) ... 20
- 여성들이 말하는 전쟁과 평화(조이여울) ... 27
-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성명서(9.11 성명) ... 34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

2. 언론, 그리고 가려진 전쟁의 진실

- 비밀과 거짓말, 언론이 만든 전쟁(조이여울) ... 41
- 전쟁의 또 다른 비극(한비아) ... 49
- 아프간여성이 말하는 전쟁: 그 슬픈 이야기(RAWA) ... 52
-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편지(RAWA) ... 54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

3.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Katha Politt) ... 59
- 복제된 포스터만큼 분노하거나 혹은 무감각하거나(타리) ... 62
- 'fucking USA'의 어이없음(시타) ... 70
- 나는 결코 되돌아가지 않는다(미나) ... 74

4. 소수자들이 본 전쟁

- "도망도 못 가고"(박영희) ... 77
- 전쟁은 전형적인 여성상을 요구한다(조이어울) ... 79
- 전쟁을 싫어하는 한 평범한 레즈비언의 이야기(케이) ... 82
- 전쟁은 여성과 자연에게 무엇인가?(기리새롬) ... 87
- 송탄의 미군부대 클럽 거리에서 미국의 아프간 침략을 상기하며(이수진) ... 95
- 무엇을,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조현진) ... 98
-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원) ... 105
- 우리의 관심을 함께 한다면(진경) ... 111

5. 우리 이름으로는 안된다

- '아직' 살아있는 그녀들, 아프간 여성혁명연합을 만나다(타리) ... 115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대한 RAWA성명서 ... 122
- 아프간여성혁명연합 RAWA의 9.11 1주기 성명 ... 125
- 전지구적 전쟁에 반대하기 위한 전지구적 연대를 호소하며(바우넷 재팬) ... 130
- NOIN(Not In Our Name) 저항의 맹세 ... 135
- 양심의 선언문: 우리 이름으로는 안된다 ... 137
- 9.11 유가족이 백악관에 보내는 편지 ... 141
- 이라크의 여성들에게(코소보 여성 네트워크) ... 143

6. 절망의 거리에서 희망의 길을 찾아서 :WAW의 활동

- WAW의 활동(편집팀) ... 147
- [성명]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 중지를 요구한다+답글들 ... 158
- [성명]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168
- [성명] 이라크 전쟁 반대! 다시, 반전 시위를 열며 ... 170
- [성명] 인권 없는 반여성적 반전운동 반대한다 ... 172
- [성명] 미국은 한반도 전쟁위협을 중단하라 ... 174
-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과 '미군장갑차여중생살인사건범대위'에 보내는 공개서한 ... 178
- 고이즈미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181
-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184
-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187
-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192

후기

1

여성이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 7.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조순경)
- 14. 전쟁과 여성(김엘리)
- 20. 하나의 전쟁, 수많은 전쟁'들':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보복전쟁(시타)
- 27. 여성들이 말하는 전쟁과 평화(조이여울)
- 34.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성명서(9.11 성명)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조 순 경 (WAW 회원)

'정당한 전쟁'이란 없다

9.11 테러 이후, 부시의 증오와 복수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부시의 그 끝을 모르는 오만함에 분노했고, 전쟁을 지지하는 미국 사람들의 아둔함에 기막혀 했고, 아프간 여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에 가슴 가득한 슬픔을 경험해야 했다. 그리고, 더 이상 파괴될 것조차 남아있지 않은 아프간에 대한 강대국들의 보복 전쟁 위협에 몸을 떨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러한 일 들을 영화관의 관객처럼 앉아 보고 있어야만 한다는 우리들의 무력함에 또 한번 절망했다. 무엇이랄도 하기 위해, 무슨 소리라도 내기 위해 한 명, 한 명의 여성들이 모여들었고, 성명서를 내고, 퍼포먼스를 하고 전쟁과 폭력을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연대하라'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사람들은 이러한 미국 보복 전쟁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전쟁이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얘기했다. 빈 라덴이 9.11 테러를 주도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프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대규모 공습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이미 더 이상 파괴될 것조차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버린,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왜 이 전쟁을 반대하는가? 만약 빈 라덴이 9.11 테러를 주도했고, 그가 아

프간에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만약 아프간이 그렇게 처참할 정도로 가난하고 아프간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에 지쳐있지 않다면? 만약 미국이 '정당한' 이유로 일본을 공격했다면? 만약 이 전쟁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아프간이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 전쟁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더할 나위없는 약소국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평화를 위한 전쟁'이란 없다. '명분있는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전쟁은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폭력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전쟁에서 여성들에게 아군과 적군은 구분되지 않는다. 미국의 공습으로 나선 피난길에 아프간 반군과 정부군에게 수 차례의 윤간을 당한 15세의 아프간 여자아이에게 자신을 '보호'해 주는 국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전쟁은 (남성) 군인들에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그 폭력의 대상은 여성, 장애인, 어린이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다. 전쟁의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우발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나의 전략으로 전쟁은 여성의 몸을 전장으로, 무기로 삼는다. 여성에 대한 강간은 주민을 길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혹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세르비아의 집단 강간 캠프가 그것이며, 일본군 성 노예 '위안부' 동원이 그것이며, 그리고 바로 지금 아프간의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성폭력이 바로 그것이다.

여성들에게 '정당한 전쟁'이란 없다. 모든 전쟁은 여성에 대해 인간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포기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은 항상 사회적 희생양을 필요로 한다. 증오와 폭력에 기반한 전쟁은 그 증오와 폭력의 대상을 만들어 내야 한다. 여기서 여성과 장애인, 외국인, 유색인종, 성적 소수자들은 그 위기의 제물로 희생당해 왔다. 이들에 대한 사회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에 기반한 태도와 행동들은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적나라하게, 공공연히 자행된다. 이들은 때로는 위기가 초래된 원인 제공자로, 때로는 위기의 결과 나타난 모든 사회 악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받아 왔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목숨 걸고 싸우는' 남성들의 보호를 받

는 존재로 그려진다.

전쟁의 사생아, 차별

9.11 테러이후 미국에서 무려 1,000여명이 테러 용의자로 체포되었거나 구금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기를 빌미로 얼마나 쉽게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이들 감금된 '테러 용의자들'의 손과 발은 족쇄로 채워져 있으며, 하루 두 번의 온몸 수색은 물론이고, 이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먹지 않는 음식들을 주고 있다.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고문까지 합법화 하고자 한다.

인간에 대한 차별은 강한 전염성을 지닌다. 한 사람에 대한 차별은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는 길을 마련해 준다.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외국인 혐오증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고, 그러한 차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를 떨어뜨린다. 유색인종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 차별에 대해 무감각하게 한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서 이같은 국가에 의한 노골적인 인권 침해를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전 세계는 잠재적인 전쟁 상태에 있지 않은가.

'얼굴 없는 전쟁'이라 칭해지는 미국의 보복전쟁은 이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이미 전쟁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전쟁이며,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얼굴 없는 테러는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고, 누구든지 테러 용의자로 지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하철 독가스 테러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테러 혐의자로 지목된 적군파가 서울에 은둔한다면? 미국식으로 한다면, 일본은 서울을 공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공습은 '악과의 성전'이고, '정의와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미국식의 '테러와의 전쟁'은 전세계를 전쟁 준비 상황에 들어가게 한다. 역사적으로 모든 전쟁은, 특히 강제적 징병제에 기반한 전쟁 준비 사회는 '정상적' 신체와 정신을 가진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희생자로, 여성과 장애인, 어린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보호받는 자로 그려왔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가부장적 남성성을 강화하고, 남성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특권을 부여해 왔다.

모든 전쟁은 국가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인간에 대한 대량 살인과 강간, 모든 종류의 폭력을 정당화해준다. 비전시 상황에서 이러한 국가주의는 쉽게 가족주의으로 전환된다. 가부장적 가족의 정점에 있는 남성들의, 그리고 그러한 남성들을 대변하는 국가와 조직들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행동은 가족의 이름으로, 또는 가족의 유지라는 명분으로 행해진다. 여성에 대한 부당 집단 해고, 성매매,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아동에 대한 학대, 이 모든 것들은 '건전한 가족' 질서의 유지라는 명분아래, 면죄부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은 전쟁을 전제로 하는 군사주의의 산물이다.

미국식의 보복 전쟁이 허용될 때,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군비를 증강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전 세계는 '전쟁을 준비하는 사회'가 된다. 군비의 증강은 당연히 사회복지의 축소를 가져오고, 복지의 주 수혜자인 여성과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전쟁에 대해 말할 권리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들이 전쟁의 일차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전쟁에 대해 말할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남성에 의해 수행되고 남성에 의해 규정되

는 전쟁에서 여성들이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없었다. 전쟁의 경험은 남성들의 경험으로, 남성들의 언어로 얘기되어 졌다. 여성들이 전쟁에 대해, 그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에 대해, 그 군인을 징집하는 제도에 대해,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여성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무지할 것을 강요당해왔다. 여성들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발언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 군대와 군사주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여성들은, "너희가 무엇을 아느냐", "너희가 우리의 희생을 아느냐"는 위압에 가득찬 소리를 들어야 했다.

여성들은 전쟁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의 선 바깥에 있어야 했다. 한 가지 여성의 역할, 알아야 할 지식이 있긴 있다. 군에 보낸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로, 군에 간 애인을 기다리는 여성으로, 이들이 해야 할 역할과 마음가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했다. 여성과 전쟁에 대한 말들은 이 선에서 멈추어 있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군사주의와 여성의 인권, 군사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정신대의 문제를 얘기하고, 세르비아의 여성 강간 캠프,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매개로 한 인종청소, 인종학살도 얘기해 왔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보복 전쟁을 보면서 여성들은 얘기하기 시작했다. 일상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전쟁의 폭력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우리들은 이 지점에 멈추어 서 있다. 여성들이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전쟁을 반대' 한다는 것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나는 전쟁이 싫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전쟁을 원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거짓과 기만 속

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다. 그를 위해 나와 다른 여성들의 경험을, 그 경험에서 나온 생각들을, 그리고 사물을 보는 여성의 시선을 신뢰하는 일이다. 우리는 너무나 오래동안 남(자)들의 말을 들어왔고, 전쟁 '전문가'들의 분석을 듣고 상황을 판단해 왔다. 여성은 전쟁이니 국제 관계니 하는 문제에 스스로 무지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성들은 전쟁의 실체에 대해 그 어느 누구보다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여성들은 전쟁의 어리석음과 폭력성, 그리고 그 허구성의 실체를 어느 누구보다 정확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그들의 일상적인 경험, 일상적으로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경험에서 나온다.

미국에서 보복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백인 중산층 남성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프간의 민주주의와 아프간 여성들의 해방을 위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어느 집단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보복전쟁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아프간 여성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전쟁도 아니며, 아프간의 민주화를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아프간의 여성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끊임없이 폭력의 기만성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프간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온몸을 뒤덮는 부르카로 인해 피부염과 천식으로 고통 받고,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어 교통사고를 당하고, 웅덩이에 빠지는 아프간 여성들의 이야기를,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구걸과 성매매로 길거리를 떠돌고, 그 거리에서 윤간을 당하는 아프간 여성들의 이야기를, 미국의 폭격으로 10명중 7명이 파괴된 건물에서 이 겨울 살인적인 추위를 견뎌야 하는 아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미국의 폭격으로 카불의 아이들 10명중 9명이 자신은 전쟁으로 죽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차마 보고 싶지 않은, 차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들의 이야기를, 밤새워 눈물 흘리며 써내려 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미국의 보복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미국의 지속되는 공격과, 늘어만 가는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은 탈레반 정권에게 명분을 제공해 주는 행위일 뿐"이라는, "피곤에 지치고, 상처받고, 비탄에 젖어, 버려진 우리 아프간 사람들이, 그 범죄자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아프간 여성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일이다.

미국의 보복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전쟁을 멈추어 달라"는, 더 이상의 절망의 상황을 생각할 수 없는 그들에게 폭격을 멈추어달라는 울음섞인 호소를, 그리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아프간 국민들의 전면적인 집단봉기에 의해 탈레반과 빈 라덴을 제거하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없이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선거로 우리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편이 되어 달라"는 그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는 일이다.

여성으로서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프간 여성들이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힘이 있음을 믿는 일이다.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고통과 억압을 가져온 미국도, 소련도 아님을 믿는 일이다.

여성으로서 어떠한 전쟁에도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쟁 준비 사회'에서 탈레반적 억압의 현실들을 드러내고, 직면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 그로 인한 고통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여성들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며, 그러한 고통을 가한 남성들이 우리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아프간 여성들의, 희망을 부르는 연대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처 : 계간 『IF』 2001년 겨울호.

전쟁과 여성

김엘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기획위원장)

한 여성단체가 주최하는 평화문제 관련 토론회에서 지긋이 나이 든 한 남성분이 손을 들고 질문하였다. “발제자와 참석자들은 전쟁의 주 피해자가 여성이라고 말하는데, 왜 여성입니까? 총을 들고 나가 싸워서 죽는 것은 군인, 남성들입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남성들이죠.” 참석자의 대부분이 여성들로 구성된 이 토론회에서 이러한 질문은 다소 좌중을 당황케 했다. 그리고 약간의 침묵이 흘렀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해독해야 할 어떤 통념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쟁은 남성의 역사이고 남성의 특권적 영역이라는 구도 속에서 국가안보의 주체자로서의 남성은 국가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명예로운 전사라는 점이 내포되어 있었다.

2002년도 새해부터 세계에 전쟁 기운으로 한파를 일으킨, 부시의 국정연설에도 해독해야 할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었다. “부시가 말한 것” 이면에 숨어있는 “부시가 말하지 않은 것”은 팍스 아메리카의 신화를 단단히 하려는 부시의 대중적 전략이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언급하지 않은 채 테러리스트의 근절을 이야기했고, 엔론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계획을 통화시켜 달라고 호소하며, 재정 적자를 거론하지 않은 채 조세 삭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하여 전쟁을 통하여 형성된 국민적 통합의 열기를 경제 침체 회복과 국가에 대한 자발적 봉사정신에 모으려고 하였다. 부시는 이를 안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였고, 현 대테러 전쟁 상태에서 자국은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였다.

토론회의 한 남성의 질문과, 전쟁으로 시작한 지난 가을 대테러 전쟁의 여파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전쟁의 해’에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전쟁담론 이면에 말하지 않은 것들을 여성적 관점으로 읽어보고자 한다. 이는 ‘전쟁의 해’를 어떻게 ‘평화의 해’로 전환할 것인가를 위한 아주 기본적인이지만 필연적인 단계이다.

1.

2001년 12월 15일 현재,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3,767명으로 집계된다. 미군의 무차별적 공중폭격과 오폭은 60명의 북부지역 족장들을 태운 트럭까지도 피해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미 13명의 가족을 전쟁으로 잃어버린 4살 소년이 미군의 폭격으로 다리가 잘려 병원에서 치료받는 장면이 뉴욕타임지의 포토그래프의 저널 란에 담겨있다. 지뢰제거를 위한 한 민간단체에 따르면, 미사일과 폭탄의 10-30%가 불발탄이므로 아프간의 땅은 언제 어떻게 피로 짓게 될지 알 수 없는, 죽임의 무기를 꺼안고 있는 셈이다.

전쟁은 철저히 손익계산을 따지는 합리성에 근거하여 발발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논리에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빠져있다. 폭력의 세기라는 20세기의 무력갈등에서 전쟁피해자의 95%가 민간인이라는 통계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지역분쟁갈등에서 인권보호의 명목으로 군사개입을 한다할지라도, 아무리 미국이 탈레반 정권과 아프간 국민을 분리시키고 아프간 난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미군의 대테러 전쟁은 군사적 행동의 살상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전쟁 난민의 80%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라는 엠네스티 여성인권보고서는 전쟁이 더 이상 여성들과 무관한 남성들만의 일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아프가니스탄 여성혁명연합의 인터넷 사이트는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에서 남편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은 비비라는 40대 난민 여성과, 탈레반군에 의해 인신 매매되어 이미 결혼한 남자 밑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지바 소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남자의사를 접견해서는 안 되는 금지령 때문에 병에 걸려도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아프간 여성들이나 국경을 무사히 넘어가는 조건으로 강간을 당해야만 했던 이디오피아의 여성들은 ‘여성’이므로 더 비인간적으로 악화된 삶을 살아야했던 ‘전쟁이야기’이다.

그런데, 아프간 전쟁동안 아프간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문제는 미국에게 정당한

(just) 전쟁의 하나의 구실로서 전면에 부상되었다. 반전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반인권적인 상황은 전쟁반대의 주요한 모티프가 되었다. 그러나 그 전쟁담론에는 정작 아프간 여성의 삶과 경험은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탈레반 정권의 원시적인 야만성을 증거하는 상징으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그들은 억압적이라고 '규정된' 이슬람문화에 의해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정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돌매맞는 불쌍한 피해자로 이미지화 되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슬람정권의 구성 과정에서 아프간 여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주변화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은 그동안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해왔던 여성들의 노력에 의해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2.

부시가 아프간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세계적 지지를 호소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적이다." 아군-적군,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세계를 적대적으로 분리시킨 이 전쟁선언은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명명하면서, 마치 세계평화를 지키는 자와 위협하는 자와의 대립으로 극대화시켰다. 전쟁과 군사주의는 '우리'와 다른, '타자'로서의 적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타자'는 '우리'의 부정어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확인된다. 따라서 적은 하나의 대상으로 비인간화되면서 짐승이나 악마로 선전되고, 그 이미지는 '우리' 가정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야만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부시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가장 위험한 무기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선제공격의 가능성도 마다하지 않는 암시를 주었을 때, 옛 냉전시대의 군사화는 냉전시대 이후의 군사화의 맥락에서 재강화되고 있었다. 미국은 MD의 추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2002년도 국방비를 480억 달러가 증가한(14%) 3,790억 달러로 예산하였다.

새로운 적의 창출과 증대되는 군사비 이면에, 눈여겨 볼 점은 군사주의의 메카니즘이 적을 만들고 적에 대한 증오심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통해 얼마나 인간을 폭력적으로 황폐케 만드는가 하는 점이다. 적을 죽이는 행위를 거룩한 행위로 만드는 신화는 누가 우리의 편인지, 누가 선하고 강한 존재인지를 밝히고 보급함으로써 살상을 애국심으로 전환시키는 근거로 작용한다. 미국의 아프간 침략이 문명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는 것으로 선전되는 반면, 이슬람권의 폭력적 야만성이 강조되고, 국민의 기아에 무책임한 채 대량살상무기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북한의 비난발언에는 이러한 신화가 숨어있다. '타자'와의 지속적인 선전기는 근거없는 선입견과 깊어가는 차별을 양산한다.

그 중의 하나가 군사적 이원화로 인해 곤궁해지는 여성의 삶이다. 군사비의 증대가 여성사회복지비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부장적 구조와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하는 군사화는 여성을 타자로서 주변화시키며, 남성에 대한 종속성을 더 강화시킨다. 여성은 전쟁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집단으로 제외됨에 따라 남성은 국가방위의 주체자로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신화를 창조, 강화한다. 이러한 구도에서, 국가안보의 주체자가 되지 못하는 여성들은 한 사회의 온전한 시민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가 없다.

또한 전투에서의 '적'의 정복은 극단적 남성성의 표출을 필요로 함으로, 강한 남성다움이 사회의 우위적 가치로 자리잡는다. 전쟁과 관련된 어떤 것을 말할 때, '정복, 강인함'과 같은 이야기들은 남성적인 것으로 고려되면서 칭송되는 반면, '동정, 약함, 패배'와 같은 이미지들은 여성적인 것으로 비유되면서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여성성을 폄하하고 남성성을 권위적이고 가치있는 것으로 부여하는 남성성의 우월의식은 전쟁의 과정과 승패를 묘사하는 은유법에서도 표출된다. 지난 걸프전쟁 당시, 공격은 강간으로 표현되고(the rape of Kuwait), 이슬람교 식의 절을 하고 있는 사담 후세인의 들려진 영상이 뒤로 미사일이 쏠릴 듯한 그림은 침략의 굴욕성을 강간(fuck you)의 이미지로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성적 은유의 표현들은 여성의 차별성과 남성의 폭력적 공격성에 관한 사고방식이 국제관계에 반영되면서 더욱 더 사실화, 내면화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나아가 전쟁과 군사주의가 어떻게 여성의 성(sexuality)을 통제하는가하는 점은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에서도 목격된다. 여성을 좋은 여성과 나쁜 여성으로 구분하여 취급하는 이원론적 성의 구조에서 남성들이 보호해야 할 '우리'의 좋은 여자가 있다면, 강간을 해도 좋고 물건처럼 다루어도 되는 나쁜 여성 즉, 적의 여성이나 매매춘 여성들이 있다. 지난 보스니아의 전쟁 때, 강간이 적의 종족 말살이라는 군사적 전략으로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었다. 적이 보는 앞에서 적의 아내를 강간하고 다른 종족의 아기를 갖게 하는 고의적 강간은 동티모르 독립투쟁운동의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인도네시아 군부는 동티모르의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매 6개월마다 동티모르 여성들에게 불임을 위한 강제 주사를 주입함으로써 여성의 성과 출산권을 통제해 왔다.

전쟁은 남성들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전투 속의 남성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부장적 구조를 기반으로, 나아가 가부장적 구조를 더 강화시키면서 상호작용하는 군사화는 전장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모든 곳에서 전쟁의 역사를 만든다. 부시가 어떤 싸움 대상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증대하고, 군사비를 증가하는 이면에는 이미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의 군사화는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세계적 군사대국화의 움직임은 가시적 폭력성이 일상적 삶 속에서 나타나는 비가시적 폭력성과 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때, 더 예리해진다.

그렇다면, 군사력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 군사주의를 해체시키는 일차적 과제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군사력 중심의 안보개념에서 포괄적 인간안보로 전환하는 일이다. 안보가 군사력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경제, 정치 등의 영역에까지 확대되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거리에서 일상적 삶에서 사람들의 안보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군비증강에 의존하는 안보추구만으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안보의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이번 9·11 참사가 보여준 충격적 교훈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도시 한복판에서 그 군사적 안보망이 뚫렸다는 사실이었다. 군사력만으로 무력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쉽게 보이지 않는 사회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갈등을 읽고 그 갈등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에 대한 현실적 대책

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할 때, 군사력 강화와 남성성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남성만을 국가안보의 주체자로 설정하는 구도를 넘어서서, 여성도 다양한 활동의 삶의 주체로서, 포괄적 인간안보의 주체로서 세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것이다. 더욱이 인간안보의 개념에 관계성, 협력, 상호소통 등의 여성적 가치가 통합된다면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을 넘어서 다양한 가치들이 결합되어 적과의 대립과 갈등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방법과 기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명료화하고 가시화해야 하는 것, 그리고 힘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는 탈 군사화 운동이 단순히 군사비 수치의 감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차별 구조와 이데올로기 비판 없이는 완성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출처: 월간 「살림」 (아우내재단 미래문화연구원) 2002년 3월호

하나의 전쟁, 수많은 전쟁들 :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보복전쟁

시타 (WAW 회원)

이 글은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와 글에서 도움받아 씌어진 것이다. 특히 내가 참여하고 있는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omen Against War, WAW)의 회원들과 회원 사이트에 올려진 자료들이 없었다면 이 글은 씌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들에게 감사한다

누구의 입장에서 전쟁에 반대하는가?

할리우드 영화 장면보다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9·11 테러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을 때, 패닉 상태는 재빨리 해소되는 것처럼 보였다. 많은 국가들이 부시의 무력사용을 '테러에 대한 정의로운 전쟁'으로 이름붙이는데 전례없는 열정을 보여주는 가운데, 별다른 증거조차 없이 오사마 빈 라덴을 테러범으로 지목한 부시정부의 보복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 무관심하며, 또다른 사람들은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굳이 셋 중에 선택을 하려면 나는 물론 '반전'을 주장하는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보낸다. 그들은 미국정부를 비난하고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을 걱정한다. 그러나 반전의 목소리들 대부분을 채색하고 있는 이러한 어조에는 분명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물론 반전의 움직임들이 생겨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때 적극적으로 원조했던 탈레반정권의 아프간을 이제 '테러국가'로 정의하고 그에 대해 전쟁을 감행하는 부시정부의 행태는, 이미 750만의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지뢰투성이 땅 여기저기에 얼마 안되는 구호식량을 떨어뜨리는 제스처로 가려지기에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것임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통찰 속에는 '미국 대 이슬람'이라는 이분법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에



A.Raffaele Ciriello
ciriello.com

일어나는 무력분쟁이라기보다는 소수의 지배집단이 다수의 민중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폭력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또다른 함정이 존재한다. 도대체 '다수의 민중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폭력'이라고 부르는가?

국가 대 국가라는 구도의 선명함을 깨뜨리고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진전시켜온 많은 진보운동들은 거의 예외없이 바로 이 '민중'이라는 단어 앞에 멈추어선다. 마치 '민중'은 모두 똑같이 억압받는다라는 뜻이 말이다. 그러나 여성주의 운동과 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운동이 역사적으로 입증해왔듯이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전쟁은 여성과 남성에게,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에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똑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결국 모두가 '하나의'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 '누구의' 입장에서 전쟁에 반대하는가"이다.

"모든 전쟁은 여성에 대한 전쟁이다"

그렇다면 전쟁은 여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전쟁과 여성이라는 단어를 나란히 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일본군 성노예의 참혹한 역사를 증언하는 정신대 할머니들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일본군 성노예의 역사는 그저 '사실'로서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들이 '우리 처녀를 강간한 일본놈들'을 비난할 때, 여성들은

그들이 '처녀'가 아닌 희생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 또한 강간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떠올리듯이 말이다. 보스니아·르완다·동티모르에서 자행된 집단강간의 사례에서 보듯이,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언제나 전쟁의 약탈물로서 간주되어왔다. 이러한 역사적 예들이 보여주는 것은 전쟁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강간·구타·학대와 같은 폭력들이 국가간 대립의 문제라기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라는 점이다.

하지만 전쟁이 여성에게 의미하는 바가 이와같은 '직접적' 폭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9·11사태 이후 미국에서 항공사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가 이루어진 이후 그 사회적 부담이 결국 누구에게 전가되었을까를 상상해보자. 해고당한 남성들의 '아내'들은 구명난 생계를 위해 열악한 조건의 파트타임 노동이라도 찾아 거리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해고당한 '여성들'은 자신의 남성동료보다 더 일자리를 얻기 힘들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IMF사태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악영향을 주었듯이, 경제불안이나 사회적 위기는 여성들에게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전쟁이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군비증강은 사회복지예산의 전반적인 축소를 가져오는데, 이것이 빈곤층의 상당수를 형성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부시 지지율 90%의 신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체화되고 획일화된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가장 먼저 발언권을 박탈당한다.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많은 서비스는 당연히 '집에 남은 여성들'의 몫으로 전가된다. 물론 폭격을 당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성들에게 이번 전쟁이 미치는 영향의 양상은 이와 다르다. 아프간 여성들은 해고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예 직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프간 여성들은 발언권을 박탈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성 직계가족의 동반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아프간 여성들에게 이번 전쟁은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전쟁의 계속일 뿐일지도 모른다.

부시의 보복전쟁이 아프간 여성들을 해방시킬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전쟁은 나쁜 것'이라는 명쾌한 도덕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존재를 보면서 곤혹스러워한다는 점이다. 전쟁은 나쁘지만, 탈레반만큼 여성 억압적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나마 좋은 면도 있지 않겠냐는 식이다. 정말일까? 정말 이 전쟁이 아프간 여성들을 해방시킬까? 이미 20년간 지속된 내전의 피해자인 아프간 여성들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번 전쟁과 관련된 몇 가지 역사적 사실들만 되짚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애초에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도록 원조한 것이 바로 미국정부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집권한 탈레반 세력은 여성들을 집안에 가두고 그녀들의 모든 법적·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박탈했다. 교육받을 권리와 취업의 권리를 박탈당한 전쟁 '미망인'들은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고, 진료받을 권리가 없는 영아 및 여성들의 사망률이 세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큰 소리를 내거나 옷 밖으로 손이 보였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죽도록 구타당하는 일이 거리 곳곳에서 벌어졌고, 연애 상대나 결혼 상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 여성들은 아버지와 남동생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러나 세계는 탈레반의 잔혹한 여성억압정책에 무관심했고, 미국정부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자, 이번에는 미국이 탈레반 정권을 비난하면서 '여성억압' 문제를 끼워넣기 시작했다. 아프간에 있는 또 다른 정치세력인 '북부동맹' 또한 이러한 정세에 발맞추어 스스로를 '탈레반보다 덜 여성 억압적인 대안세력'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부동맹의 전사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1992~96년의 기간 동안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고 수많은 강간과 잔혹 행위를 자행했던 바로 그 자들이다. 결국 부시정권도, 탈레반 정권도, 빈라덴도(그가 한때 미국 CIA의 조직원이었다고 주장하는 외국문헌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북부동맹도 여성들에 대한 '전쟁'을 자행하거나 그것을 묵인하고 지원해왔다. 이 전쟁에서 '여성인권'이라는 말은 각자 편의대로 자기 정당화를 위해 끼워 넣을 수 있는 수사학에 불과한 것이다.

부시정권은 정의의 편에 선 강한 남성이 악당의 손아귀에서 여성을 구해준다는 진부한 슈퍼맨 시나리오를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것이 거짓말임을, 즉 자신들이 악당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슈퍼맨에 의해서도 억압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부시의 편도, 빈라덴의 편도 아니다"라고 말했던 한 아프가니스탄 여성

의 말처럼. 그렇다면 부시정권의 슈퍼맨 이야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혹시 그들 역시 슈퍼맨 이야기의 신봉자들이기 때문은 아닐지?

무엇을 '전쟁'이라고 부를 것인가?: 일상적 폭력과 전쟁 폭력

이 '슈퍼맨 이야기'의 상황설정에는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이슬람문화권을 야만 그 자체, 절대악으로 묘사하는 흑백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한쪽을 악당 그 자체로 만듦으로써 다른 한쪽은 도덕적 선(善)의 지위를 얻는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 속에서 악당과 슈퍼맨은 모두 남성이며, 여성은 억압받거나 구해지는 대상일 뿐이다. 여성의 입장에서 '반전'을 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같은 함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탈레반 치하의 여성억압을 단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어떤 야만적 상황으로 치부해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손쉬운 도덕적 위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가령 이런 것이다. 남성들을 유혹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에게 하이힐 착용을 금지하고 온몸을 검은 천으로 휘감게 하는 아프간의 규율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폼행'을 문제삼는 한국사회의 인식을 생각나게 한다. 탈레반이 한때 우리 사회보다 여성에 대한 교육율이 높았던 아프간의 여성들에게 교육을 금지시킨 것은 1세기 전만 해도 한국사회에 역시 적용된 관습이었다. 아버지나 오빠, 심지어 아들의 동행 없이는 외출조차 불가능한 아프간 여성들의 상황은 한국사회에 온존하고 있는 호주제의 논리와 닮아 있다. 여성이 오직 가사노동을 하고 남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며 아이를 낳는 도구에 불과한 상황이 아프간에서만 벌어지는 특수한 일이라고 과연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 아프간이나 이슬람문화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가 여성을 남성, 가족, 국가나 인종, 아니면 특정 종교의 소유물로 정의해왔는데 말이다. 탈레반 정권의 이슬람 원리주의가 문제인가? 그러나 기독교나 유교 같은 우리에게 좀더 친숙한(?) 종교들 역시 여성억압적이다. 전쟁이 문제인가? 분명 전쟁이 여성들에게 더욱 커다란 재앙을 가져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시에 여성들이 폭력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볼 수 있다. 여성들에게 전

시와 평화시의 명확한 구분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전쟁'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이제까지 전쟁이라는 용어는 언제나 가부장적 공/사 분리 속에서 '정치적' 혹은 '공적'이라고 불리는 남성집단들 사이의 무력갈등만을 지칭해왔다. 그러나 여성의 시각에서 본다면, 전쟁은 단지 국가의 선포에 의해 시작되고 끝나는 어떤 것만은 아니다. 부시가 전쟁을 선포하기 이전부터 아프간 여성들이 이미 '전쟁 상황'에 놓여 있었듯이 말이다.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전쟁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적 폭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탈레반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여성억압에 경악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폭력의 상황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하여 자신의 일상 속에 있는 여성폭력에 더욱 둔감해지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하나의 전쟁, 수많은 전쟁'들': 여성과 소수자의 입장에서 전쟁에 반대하기

죽이는 자들과 죽임을 당하는 자들을 구분해내는 것, 그리고 특히 죽임을 당하는 자들의 '성별'을 구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보복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미국에도 성조기의 물결 뒤면에 군비증강으로 인해 삭감된 복지예산으로 생존의 위협을 당하게 될 빈민여성들이 있다. '광신도들'이 차지한 야만의 땅 아프가니스탄에도 손톱을 물들였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잘리는 이슬람교도 여성들이 있다. 전쟁은 나쁘다. 그러나 '무엇이' 전쟁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나쁜지를 질문해야만 한다. '누구의' 입장에서 전쟁에 반대하는지를 물어야만 한다. 반전운동이 의미와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전제하에서이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전쟁의 최대 피해자였던 여성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질문들, 그러한 행동들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입장에서 '평화'와 '반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군대 간 아들을 격정하는 모성의 실현이나 '아무것에 대해서도 싸우지 않겠다'는 타협의 표현이 결코 아니며, 반대로 전쟁폭력과 일상적 폭력의 연관성을 간과하고 맥락화함으로써 양자 모두에 급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들과 정신대 할머니들, 전쟁시의 집단강간 피해자들과 아프간 여성들에게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며, 많은 여성들에게 '전쟁'은 일상적이고 다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모든 전쟁이 여성에 대한 전쟁일 뿐만 아니라, '전쟁' 개념 그 자체가 국가와 국가 간의 대립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닌 일상적 폭력과 연관된 어떤 것으로 다시 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보복전쟁을 바라보는 지금, 여기의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전쟁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 그리고 일상적 폭력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전쟁들'에 구체적으로 반대하고 그러한 수많은 '전쟁들'을 없애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다.

출처: 계간 『창작과 비평』 2001, 겨울호

여성들이 말하는 전쟁과 평화

여 울(WAW 회원)

"전쟁과 평화에 대한 답론은 너무나 무거운 것이어서 여성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평화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기 어렵다."

미국이 자국의 테러에 대한 보복공격의 대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지목하고 눈 깜짝할 사이 세계가 새로운 전쟁체계에 편입되기 시작했을 때 한국의 한 여성단체 실무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연합국들이 아프간 땅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지 한 달이 더 지난 지금,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목소리로 전쟁을 반대하고 있으며 평화와 정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름을 기억하는 여성들의 평화감수성

9·11 테러직후 부시정부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전쟁준비 태세에 임했다. 범인을 지목하고 그가 은거해있는 아프가니스탄을 보복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를 명분화시킬 수 있는 '테러와의 전쟁'을 간판으로 걸었다.

대통령에게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미 하원의원 바바라 리(50)는 이후로 쏟아지는 협박전화와 위협 때문에 경호원을 두어야 할 정도였다. 뉴욕 콜롬비아대에 출강하며 <군사주의와 여성>을 강의하고 있는 여성학자 권인숙씨는 "미국을 휩쓴 광기의 시간 속에서 누구도 부시정권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그녀의 용기는 빛나는 것"이라고 평했다.

세계 각국에서 전쟁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이어졌을 때 아시아 지역 여성들은 "과

거의 아픔을 성찰하라"고 외쳤다.

20세기 일본이 자행한 전쟁범죄에 대해 문제 제기해 온 여성단체 바우넷 재팬(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Network Japan)은 9월 17일 "지난 세기 수 백만 명의 아시아 민중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일본이 일으킨 이유 없는 침략성을 상기하라"며 미국 보복전쟁과 일본 자위대법 수정결정을 반박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9월 20일 연대성명을 내고 "전쟁을 경험한 우리 여성들은 폭력과 무력이 결코 평화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런 신념 위에서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여성 네티즌들과 단체들이 모인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Women Against War)'는 "우리에게 전쟁은 '강간'과 '정신대'를 의미한다"며 전쟁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를 이야기했다.

9월 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전쟁과 필리핀 정부의 지지에 반대하는 행진을 벌이면서 "남성들이 그들의 무기에 의지하는 동안 평화는 현실에서 멀어져왔다"고 비판, "여성들은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남성들의 손에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러 전선 거부·약자의 편에 서다

미국정부는 세계를 "미국의 편 아니면 테러리스트 편"으로 갈라놓았고 아프간 공습 이후로 그 구도는 더욱 뚜렷해졌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많은 여성들은 "우리는 부시의 편도 빈 라덴의 편도 아니"라며 '부시 정권 식의 편가르기'를 비판하고 새로운 정의를 요구했다.

"미국은 이슬람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신의 이름을 들어 전쟁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거룩한 전쟁'을 보아왔지만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한국여성학자협의회)

"각 정부들과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미국편이 되든지 아니면 그 반대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포화 속에 던져져 있는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의 편에는 도대체 누가 설 것인가?"(필리핀 전국여성과 아동보호행동 'All Women and Children Protest Action')

9월 29일 샌프란시스코 시내 1만 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반전 시위 속에서 버지니아 울프의 '여성에게는 국가가 없다'가 씌어진 피켓이 들어올려졌다. 여성들은 국가와 민족의 시각이 아닌 사회의 가장 약한 자의 눈으로 전쟁과 평화, 정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페미니스트 잡지 <미즈>는 "테러리즘을 근절하려면 독기가 있는 공기를 사회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들에 속하는, '광산 속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인 여성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아프간 여성들, 팔레스타인 여성들, 이라크 여성들, 그리고 테러리즘이 어떤 것인지 알고있는 지구상의 모든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버클리 소재 유색인 여성연구소는 "아랍계 미국인, 무슬람, 동남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인종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는 사회'가 조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전쟁은 폭력과 차별을 정당화시켜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성과 소수자들의 인권을 짓밟을 것"이라면서 "여성으로서, 성적소수자로서,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여성 성적소수자들은 전쟁을 반대하는 활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묻혀진 아프간의 소리에 귀 기울여

미국에서 아프간 여성인권을 위해 활동을 펼쳐 온 FMF(Feminist Majority Foundation)는 테러직후 성명을 내 "탈레반 정권의 1차 피해자는 아프간 여성들이며, 미국의 전쟁준비로 인해 그간 활동하던 국제원조마저 차단돼 더욱 참혹한 삶을 맞게 됐다"면서 "이 전쟁의 상황에서 아프간 여성들과 아이들의 문제가 묻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주 인권위원회 한 관계자는 "전쟁은 모든 기회주의자들에게 이용될 것이며 정보는 더욱더욱 제한될 것이고 진실은 뒤로 물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들은 제한되고 심지어 왜곡된 정보의 공세를 뒤로하고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성네트즌들을 중심으로 모인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가 처음 펼친 활동이 바로 '정보공유와 확산'이었다. 여성연대의 회원들은 무엇보다 아프간의 현재 상황과 아프간 여성들의 목소리,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여성들의 움직임을 알고자 했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세계의 시선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쏠린 가운데 아프간의 어제와 오늘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창구는 다름 아닌 아프간 여성들의 풀뿌리 조직, 아프간여성혁명연합(RAWA: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이다.

RAWA의 활동가들을 비롯한 아프간의 여성들은 구 소련과의 10년 전쟁과 이어진 내전을 겪으면서 전쟁이 가져온 참상을 목격했다. 이어 정권을 잡은 탈레반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남성 우월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 정책 속에서 여성들은 '생각할 자유'조차 빼앗긴 노예의 삶을 강요당했으며 소수민족들은 학살당했다.

구 소련 점령기에 정권교체 시위와 국제적 여론활동을 펴왔던 RAWA는 내전과 탈레반 집권으로 이어지는 근본주의자들의 탄압에 맞서 여성들의 생명과 경제권, 자율권을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왔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각 언론들이 파키스탄으

로 넘어간 아프간 난민의 수를 헤아리고 있을 때 RAWA는 아프간 땅에 고스란히 남아 미국과 연합국의 공격을 받고있는 2천만 명 아프간인들의 실상을 알려내고 있다.

어떤 폭력과도 타협하지 않는 용기

테러 직후 RAWA는 성명을 통해 "가난하고 험벗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은 테러리스트 지하드도, 탈레반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아프간을 공격하는 것이 미국인들의 슬픔을 감소시키는 방법인가?"라며 미국정부에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과 연합국들은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고 미국은 아프간의 북부동맹을 지원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탈레반을 전복시킬 공리를 했으며 한편으로 이 전쟁이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선전했다.

10월 11일 RAWA는 "미국의 공격과 시민들의 희생이 탈레반 정권에게 명분만을 더 제공해주고 있으며 아랍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근본주의자들의 세력을 더 키워주고 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RAWA는 이 성명에서 반여성적이고 반민주적인 탈레반 정권, 테러리스트 세력을 키워냈으면서 이제와 반테러리즘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공격하는 미국과 그 연합국, 그리고 이 참에 정권을 잡아보고자 칼날을 갈고 있는 '살인자' 북부동맹 모두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RAWA는 심지어 "전 국왕의 복귀를 바라지만 그가 북부동맹이나 온건파 탈레반 세력에 힘입어 돌아온다면 국민들에게 명망을 잃을 것이며 안정적인 정부를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힘없는 자의 편에 서 있는 RAWA의 활동가들은 어떤 폭력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외국의 간섭이 없을 경우, 모든 민족과 종교들이 단결해 자부심 강하고 자유로운 아프가니스탄 국가에 가장 이익이 되는 길을 찾을 것이라

믿는다. 근본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여성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전 국왕에게, 더 늦기 전에 아프간에서 집단봉기를 조직하고 아프간 국내외 적들의 계획을 꺾는데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여성의 '정의'로 평화의 불길 지핀다

10월 10일 신촌과 광화문에서 아프간 여성들의 고통을 상징하는 검은 천을 두르고 '건널목 시위'를 벌인 젊은 여성들은 “지금처럼 평화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프간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 지속되면서 여성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 또한 더욱 커져가고 있다. 군대를 앞세운 애국주의와 한 쪽에서는 반미를 앞세운 민족주의가 전세계를 휩싸고 있는 가운데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평화담론도 무르익고 있다.

한국 여성단체들이 연대해 결성한 '전쟁반대 여성평화행동'은 11월 13일 '전쟁과 여성' 토론회를 개최해 여성의 관점으로 전쟁과 테러, 그리고 평화를 읽어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는 <아프간 여성 영상제>를 열어 최악의 상황에 다다른 아프간 여성들의 눈 높이를 전쟁을 바라보라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세계 각국의 여성평화단체들과의 연대망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험벗고 공포에 빠져있는 아프간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도 함께 벌여나가고 있다.

전쟁의 최대 희생양인 '여성과 어린이, 소수 민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평화를 말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더욱 낮은 곳에 있는, 더욱 약한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화감수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어떠한 힘도 갖지 못한 약자들의 입장에선 어떠

한 종류의 폭력도 단지 '폭력'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여성들은 “평화를 위해 결코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전 세계에 요청하고 있다.

출처: 계간 「IF」 2001년 겨울호.

[성명] 부시 행정부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 미국의 테러와 그 희생자들에 대한 소식은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테러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보복 전쟁 소식은 우리를 지금 더 큰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테러행위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면, 얼굴없는 적을 향한 '더러운' 보복 전쟁 또한 인류사회가 허용해서는 안될 국제적 범죄 행위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우리에게 그의 편과 테러 분자의 편,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시의 편도, 빈 라덴의 편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테러와 전쟁의 피해자, 그리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쟁입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은 항상 희생양을 필요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항상 그 희생양의 첫 번째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전쟁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모든 부정의, 불합리와 불평등, 그리고 모든 종류의 폭력에 면죄부를 부여해 왔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시민의 기본적 권리들은 너무도 쉽게 유보됩니다. '비밀주의'로 시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위기'를 이유로 기본적 평등권이 제약받고, 폭력은 정당화됩니다. 군비 증강으로 인해 복지 예산은 축소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전쟁의 일차적 피해자가 됩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전쟁은 굶주림과 죽음 이외에도, '정신대'와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일본군 성 노예의 역사가 청산되지도 않은 지금, 세르비아의 인종청소를 위한 집단 강간의 기억이 채 사라지지도 않은 지금, 우리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매춘은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판사의 판결문에서, "공창제"의 필요성을 드높이는 언론 보도에서, 우리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고통스런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젊은 군인들의 성욕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는 정신대의 논리와 한 치의 다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대의 명령은 부시의 '더러운 전쟁',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과 더불어 현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여성들이 '전쟁'이라는 단어에서 더 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번 테러에 무고하게 죽어간 수없이 많은 미국 시민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60여년 전 일본군에 끌려가 강제적 성노예가 되었던 정신대 할머니들의 고통과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탈레반의 폭압적 통치 아래 희생된 수백만의 아프간 여성들과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한 마디 인사도 전하지 못한 채 소리 없이 죽어간 수많은 미국 시민들은, 보복 전쟁으로 인해 아프간의 아이들이 어머니를 잃어야 하는 슬픔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무역센터에서 최저 임금을 받으며 청소부로 일하다 죽어간 흑인 여성은 아프간의 여성과 아이들이 부시 행정부의 보복 전쟁으로 인해 폭력과 빈곤으로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펜타곤을 들이받은 비행기에 탑승했다 목숨을 잃은 백인 여성은 이미 두 아이를 전쟁에서 잃고 절규하는 아프간의 어머니가 또 다시 전쟁의 공포에 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테러의 희생자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했던 수많은 미국시민들은 보복 전쟁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아프간의 국제원조기관들이 그 나라를 떠나고, 그리하여 아프간의 여성과 아이들이 더할 길 없는 절망을 맞이해야 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테러 분자들의 편이 되든지 선택하라!” 테러의 기억으로, 오늘도 슬픔과 겁에 질린 뉴욕의 여성들은 이러한 부시의 목소리에 한국의 여성들이 두려움과 분노로 밤을 지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의 보복 전쟁,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은 테러로 희생당한 이들의 영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한, 바로 그 증오와 폭력으로는 위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으로 희생자를 애도하며, “우리의 슬픔을 전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는 미국 시민들의 메시지를 부시 행정부와 한국 정부는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를 향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노벨 평화상은 영광인 동시에 무한한 책임의 시작”라는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연설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그 ‘무한한 책임’을 지기 시작할 것을 엄숙히 요구합니다. 그를 위해 일차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전쟁 범죄 수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증오에 기반한 폭력의 악순환을 중단할 것을, 폭력의 종식은 평화와 화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부시 행정부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떤 형태의 정부 지원도 반대합니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내용의 지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증오에 기반한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올 부시 행정부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도덕적 지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시 행정부의 전쟁 범죄를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보복 전쟁의 대상이 되어도 좋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굴 없는 적’을 향한 ‘더러운 전쟁’의 화살은 언제든지 한반도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시가 ‘지목’ 하면, 그곳은



2001년 10월 10일 WAW 건널목 시위



‘테러 집단을 비호하는’ 곳이 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근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비밀주의’는 국가에 의한 국제적 범죄를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부시가 한반도를 지목하면, 한반도는 전쟁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시의 전쟁 범죄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러한 방식의 국제적 범죄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부시 행정부의 전쟁 범죄 선포는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는 소리로 들립니다. 무력 사용 허용에 만장 일치로 찬성 표를 던진 미국 상원의 모습에서 우리는 전체주의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 범죄를 수행하는 부시 행정부와 그들의 뜻을 전파하는 언론들은 그 동안 인

류 사회가 이루어놓은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평등의 가치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그리하여 우리에게 더 큰 억압과 차별의 굴레를 강요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부하는 모든 종류의 전쟁과 폭력을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잊혀져 온 모든 여성, 장애인,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 어린이,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에 대한 믿음으로, 절망의 거리에서 희망의 길을 찾아 나서는 세계의 모든 시민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멀고 험난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장>

- 1. 우리는 여성, 장애인,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 어린이,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하는 전쟁과 폭력을 반대합니다.
- 1. 우리는 "우리는 빈 라덴도, 탈레반도 아니다"라는 아프카니스탄 사람들의 절규를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분명히 들을 것을 요구합니다.
- 1.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전쟁으로 물고 가지 말라"는 미국 시민들의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분명히 들을 것을 요구합니다.
- 1.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증오에 기반한 폭력과 보복전쟁의 악순환을 중단할 것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촉구하기를 요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세계를 향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우리는 한국 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형태의 지원이든 그것은 증오에 기반한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올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도덕적 지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 우리는 부시 행정부가 전 세계 시민을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가는 전쟁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우리는 부시 행정부가 '전쟁 상황'을 구실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말살하고자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우리는 부시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 회복을 구실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1년 10월 5일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Women Against War)

2

언론, 그리고 가려진 전쟁의 진실

- 41. 비밀과 거짓말, 언론이 만든 전쟁(조이여울)
- 49. 전쟁의 또 다른 비극(한비아)
- 52. 아프간 여성이 말하는 전쟁 : 그 슬픈 이야기(RAWA의 지지자)
- 54.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편지(RAWA의 지지자)

비밀과 거짓말, 언론이 만든 전쟁

조이여울(여성주의 저널 <일다> 편집장)

I. 가려진 것들

우리가 1991년 걸프전이 일어났음을 아는 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쟁이 발발했음을 알았다. 우리 머리 속엔 당시 TV를 통해 보았던 영상이 전쟁의 모습인 양 입력돼 있을 뿐이다.

걸프전을 통해 전세계인의 전쟁 미디어로 떠오른 CNN은 연일 전쟁상황을 시뮬레이션 화면을 통해 보도했다. CNN은 신무기의 활약을 끊임없이 칭송했고 미국이 일으킨 이 전쟁을 '희생자 없는 전쟁'이라고 선전했다. 당시 한국 방송 3사는 CNN 화면을 그대로 내보냈기 때문에 CNN의 보도는 우리에게 직접 전달됐다.

게임 화면과도 같은 영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전쟁을 '멀리 있는 것'으로, '남의 일'로, 심지어 '재미있는 것'으로 느껴지게 했다. 그 속에서 죽음과 폭력과 공포에 시달리는 이라크인들의 고통이나 비명은 찾을 수 없었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듯한 화면을 보면서 괴로워하거나 눈물 흘리는 이는 거의 없었다. 한편 전쟁보도는 미국의 공격이 끝남과 동시에 종료됐다. 때문에 걸프전 이후 무수히 많은 이라크 국민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었다.

지난 9.11 참사 이후 부시 정권이 무서운 속도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을 준비해나가고 있을 때 미국 언론들은 '테러에 대한 전쟁'이라는 헤드라인을 걸고 부시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데 앞장섰다. 언론에 의해 미국 시민들은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간주됐다. 반면 9.11 희생자들 중에 외국인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사

실은 북인됐다. CNN이 “아프간 여성과 어린이들이 파키스탄 퀘타 지역에 도착했다”라고 보도할 때 실제로 아프간 땅에서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대다수 여성과 어린이들의 존재는 간과됐다.

언론은 전쟁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어도 전쟁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전쟁은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죽을 지 모른다’는 공포가 아니었다. 전쟁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지 못하는 병사들에게 강간을 당한 소녀의 비명이 아니었다. 전쟁은 물이 끊기고 전염병이 나돌아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의 고통이 아니었다. 전쟁은 글자 대신 지뢰 피하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전쟁은 수년에 걸친 약탈과 차별과 박해의 연장선이 아니었다. 전쟁은 무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믿는 자들로 인한 폭력의 악순환이 아니었다. 또한 전쟁은 다음 희생양이 될 사람들을 겨냥한 전주곡이 아니었다.

전쟁은 무덤덤한 시뮬레이션 화면이었고 가공할 힘을 가진 무기들이었다. 전쟁은 불과 몇 주만에 막을 내렸고 빠르게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전쟁불감증 부추기는 한국언론

“이라크 전쟁, MBC 뉴스가 함께합니다.”

2003년 3월 20일 미군과 영국군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MBC는 전쟁이 마치 월드컵이라도 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광고방송을 내보냈다. 전쟁 직전까지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오던 MBC가 말이다. MBC만이 아니라 한국의 방송사들은 제각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 “미국이 언제쯤 대규모 공격에 들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을 공중에서 떨어트리기 위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도 제 구실을 하지 못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능이 뒤떨어지는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2기만을 겨우 격추시켰을 뿐이었습니다.” (2003.03.21 SBS 8뉴스)

... “본격적인 공중전을 선언한 미국은 바그다드와 모술 등지에 대한 공습에서 가공할만한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과 전폭기 등 첨단 장비와 무기가 총동원됐습니다. 오늘 새벽 공습에는 영국 페어폰드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B-52 폭격기 8대가 선봉에 섰습니다. 스텔스기능을 갖춘 B-1, B-2 전폭기…….” (2003.03.22 YTN)

... “미영 연합군이 주요 공항을 점령함으로써 바그다드 진격을 위한 중요한 공격 기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연합군은 이라크 북부와 남부, 서부의 주요 거점을 확보한 공군기지와 공항 등 세 곳이 바그다드 공격의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그다드 진입작전의 선봉에 섰던 미 보병제3사단은 과연 어떤 부대인지... 미영연합군의 지상군 투입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최강의 보병사인 3사단에게 이번 전쟁에서 남은 것은 이제 바그다드 시가전입니다.” (2003.03.30 KBS 뉴스9)

그런가 하면 각 신문의 국제면은 미국과 영국 측으로부터 나오는 외신들로 고스란히 채워졌다.

... 美-英 30만군, ‘3월 총공세’ 카운트다운 (2003.03.03)

... 이라크戰, 주목받는 지상지원기 (2003.03.23)

... 럽즈펠드, “전쟁 아직 시작 단계” (2003.03.28)

... 이라크戰, ‘동구권은 여전히 골칫덩어리’ (2003.03.31)

... 이라크戰, 연합군, 바그다드 진격 임박 (2003.03.31)

... 바그다드 포위작전 돌입... 이라크전 1단계 마무리 (2003.04.07)

한국의 주요 방송과 신문을 통해 이라크에 가해진 폭격은 ‘이라크전’으로 통칭되고, 미군과 영국군은 ‘연합군’으로 명명됐다. MBC 매직 스튜디오, KBS 버추얼 스튜디오, SBS 사이버 스튜디오에서 화려한 사운드와 함께 등장하는 전투기, 장갑차 모형들은 깔끔하고 단정했다. 앵커가 전달하는 미군과 영국군의 작전 해설이 곁들여져 한창 유행했던 리니지 게임을 연상시켰다. 뉴스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무기와 관련된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이번 전쟁으로 누가 얼마큼 돈을 벌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계획과 작전을 중심으로 전쟁을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는 우리 국민들과 이라크 국민들을 떨찌감치 분리시켰다. '이라크 다음은 한반도'라는 표어가 전 세계인의 머리 속에 박혀있건만 놀랍게도 우리 언론들은 이에 대해 침묵했다.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저 남의 일일뿐인 것으로 비취졌고 한반도 전쟁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제대로 된 분석이 시도되지 않았다. 반면 전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분석은 철저했다.

한편 국군과병안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언론은 '과병=국익과 실리, 과병반대=도덕과 이념'이라는 과병 지지자들이 만든 설정을 그대로 견지했다. 보수 언론들이 앞장서 이런 이분법적 구도를 구축하고 과병을 주장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 <'이념의 잣대'를 버려라>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과 외국인 투자자 철수 움직임 등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의 한·미간 이상기류에서 비롯된 '반미(反美) 비용'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군 과병 동의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경제상황과 북핵문제 등 여러 현안을 헤쳐나가기 위해 미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은 정확한 현실인식이다."(2003. 03.23 조선일보 김기전 논설위원)

... <'武人시대'의 전쟁> "내 개인적 삶의 가치관을 국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도 또 다른 폭력이다... '국제사회에선 힘이 정의' -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무조건 '도덕적으로 올바른' 반전만을 외칠 일이 아니다."(2003.03.28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

누구의 시선인가

핵심은 시선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보도하는 우리 언론은 누구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모니터에 담긴 화면들은 누구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인가. 각 신문들이 사실을 통해 강변하던 과병논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강자의 지배가 당연하다고 침략을 미화시키는 이들의 시선인가. 아니면 공포와 슬픔에 몸을 떨고 있는 이들의 시선인가. 전쟁을 단지 게임화면으로 기억해줄까 바라는 이들의 시선인가. 아니면 죽음과 부상으로 신음하는 이들의 시선인가. 전쟁위기에 주가폭락을 걱정하는 이들의 시선인가. 아니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발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시선인가. 미국이 우리의 우방국이며 부시에게 이성이 있다고 믿는 이들의 시선인가. 아니면 평화를 위한 세계적인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이들의 시선인가. 군수업체의 무궁한 발전과 방위비 증강을 원하는 이들의 시선인가. 아니면 복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이들의 시선인가.

언론의 보도는 누군가의 시선을 담게 마련이다. (우리 언론이 상당수 누구의 시선을 반영해야 좋을지 몰라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이랬다 저랬다 눈치 살피며 관점이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그 시선의 차이에 따라 전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구성된다.

특히 언론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에 대해 과고들어 분석하고 설명해주기 보다 그저 기득권에게서 나온 논리를 주워 담아 국민들을 설득하려 했을 때 그 해악성은 더욱 심각하다. 부시가 중동지역에 대한 침략을 '테러와의 전쟁'이라 정의 내리고 자국민과 전 세계인을 상대로 우기듯이 기득권의 논리는 '무한정의라는 퀘번적이고 까다로운 대수학'(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전쟁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로 어떤 말이든 만들어 얼렁뚱땅 정의 내려버린다는 의미로, 2001.09.11 영국 <가디언>지에 실린 아룬다티 로이의 글에서 인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보도하는 우리 언론의 자세는 누구의 시선을 반영한 것인가

가. 반인권적인 언론보도에 대해 지속적인 지적과 비평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피해자인 이라크 국민의 시선도,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한국 국민의 시선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을 둘러싼 갈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수많은 비밀과 거짓말에 둘러싸였다.

II. 전쟁의 실제

많은 이들이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명분이 없는 전쟁'이기에 반대한다고 말한다. 그 속에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전쟁중단을 위한 국민적 행동을 촉구하며 4월 3일 발족한 반전평화비상국민회의 조차도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곧바로 물게 된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은 명분이 있었는가. 미국이 만약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테러조직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면 한국군의 파병은 정당한 것인가. 전쟁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

여성은 경험으로 증언한다

전쟁에 관한 '명분'과 '정의'를 논하는 이들의 논리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전쟁반대 소리는 계속해서 묻혀왔다. 전쟁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할 권리는 늘 군인으로 대표되는 남성들에게 속한 것이었다. 우리 사회의 전쟁과 평화담론에서 전쟁 피해자로서의 여성,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평화를 만드는 힘을 가진 주체로서의 여성들의 반전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아들을 전장에 내보내게 될까 염려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만 배당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전쟁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구책으로서의 테러, 테

러와의 전쟁, 독재에의 해방, 종교갈등과 문명의 대립,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등 수많은 담론들이 전쟁을 둘러싸고 전개됐고 나름의 '명분'과 나름의 '정의'가 나름대로 세워졌다. 그러나 여성들은 전쟁에 어떤 명분도 정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여성들은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며 그 사람이 어느 지역의 누구이건 관계없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전쟁이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시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정복자 군대가 정복지의 여성들을 계획적으로 강간한다(일본군 성노예 제도, 보스니아, 르완다, 동티모르의 집단강간과 인종학살)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여성과 어린이가 전쟁 난민의 80%를 차지한다(웬네스티 여성인권보고서)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여성에게, 어린이에게, 장애인에게, 노인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있어서 모든 전쟁은 살인과 강간과 모욕과 차별을 가져오는 무서운 폭력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어떤 국가 혹은 민족에 대해, 어떤 종교관을 지닌 이가, 어떤 이유를 들이대며 전쟁을 일으키건 간에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희생양이 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쟁의 실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그들의 무기에 의지하는 동안 평화는 현실에서 점점 더 멀어져 왔다"(2001.09.25 필리핀 전국여성과 아동보호행동 성명서에서 인용)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전쟁이 몰고 온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재작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수많은 아프간 사람들의 죽음과 기아와 폭력과 질병을 가져왔다. 미국은 과거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키워왔던 세력들을 제거한 다음 새로운 무장단체인 북부동맹을 키웠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을 붙인 이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아랍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 생화학 무기의 공포, 핵의 공포, 전쟁의 공포에 휩싸이게 됐다. 미국과 유럽에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과 폭행은 노골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안보를 위해 군비를 증강하고 그에 따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쓰여져야 할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평화는 현실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진실은 여기에 있다

전쟁과 여성, 전쟁과 인권은 극과 극에 위치해있다. 전쟁은 무력을 가진 이들이 힘의 논리에 충실하게 세계를 재편해가는 과정이며 언제나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남성의 질서, 힘의 질서를 반대하고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명분 있는 전쟁, 정의로운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실체이며 우리가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전쟁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다.

전쟁을 둘러싼 수많은 비밀과 거짓말이 양산되고 있지만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은 온몸으로 느끼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건조한 전쟁 게임 화면 뒤에 숨은 고통과 비극을 말하는' (2002.10.08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 '아프간 전쟁 1주기 성명서-인권의 이름으로 전쟁을 말하지 말라'에서 인용) 여성들의 반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출처: 「인물과 사상」 2003년 5월호

전쟁의 또 다른 비극

한비아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

여기는 서아프리카 씨에라리온의 코노 지역. 10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방금 끝난 곳이다. 남한면적의 3분의 2, 인구 5백만의 나라에서 내전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무려 백만 명. 특히 기니와 국경을 맞댄 이 지역은 반군이 끝까지 저항했던 곳이라 전쟁의 폐해와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긴급 구호 팀에게는 전쟁 직후 진행되는 구호활동의 생생한 현장이기도 하다.

코노는 작년에 보았던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연상케 했다. 도시전체에 멀쩡한 건물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초토화되었다. 남은 건물 벽도 온통 금이 가 곧 무너져 내릴 것 같다. 우리 숙소 앞 뒤 건물에도 총알 자국과 불탄 흔적이 역력하다. 당장이라도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반군 소년병들이 총을 들고 튀어나올 것 같다.

1991년 시작된 내전은 무능한 정부에 맞선 반군의 정치적 항쟁이 발단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 사이의 갈등양상을 보였다. 한때 전국의 3분의 2를 반군이 장악하면서 내전의 끝이 보이지 않다가 1996년 유엔이 평화협정에 적극 개입해 2001년 12월 드디어 공식종전이 되었다. 방금 전쟁을 치른 사람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못해 엽기적이다. 36살 쿨바 아줌마. 2년 전 반군의 습격을 받아 갓난아이를 들쳐업고 도망가다가 강가에서 붙들렸다. 반군 소년병들은 아줌마에게 업고 있던 아이를 강에다 던지라고 명령했고 이를 거부하자 아이를 빼앗아 강물에 던져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줌마를 집단 성폭행 했단다. 그것도 모자라 인근 민가로 끌고가 함께 잡힌 동네 남자 8명의 팔뚝을 차례대로 작두로 자르고, 기둥에 묶어 놓고 불을 지른 후 퇴각했다고 한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쿨바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자기 아이를 강물

에 던지면서, 자기를 윤간하면서, 사람들 손목을 자르면서 낄낄거리던 15살 남짓 소년병들의 웃음소리를.

이런 집단광기의 예는 끝이 없다. 임신부 배 안에 있는 아기의 성별에 내기를 건 후, 칼로 배를 갈라 아이를 꺼내 알아보았다는 얘기. 그 내기에서 진 소년병이 그 아이를 그대로 바위에 쳐죽였다는 얘기. 아버지에게 딸을, 아들에게 어머니를 강제로 근친 강간시킨 얘기. 7살 때 반군에게 잡혀 3년간 성 노리개로 있다가 탈출한 여자 아이는 실어증이었다고, 또 그렇게 끌려가 불가항력으로 반군의 아이를 뒀이나 낳은 18살 엄마의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다. 아직도 우물바닥을 청소하면 시체가 무더기로 나오고 건기의 강바닥을 들여다보면 해골투성이란다.

그 밖에도 신문에는 차마 공개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일들을 당사자나 목격자의 증언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고 들었다. 번번이 경악을 참지 못해 비명을 질렀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만행의 주체인 소년병은 줄잡아 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4년간 소년병이었던 청년에게 다른 쪽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전쟁 중 부모를 잃고 갈 곳이 없어 반군에 들어갔단다. 사람을 죽여 보았나니까 너무나 당연히 그렇단다. 성폭행도 방화도 수없이 했고 민간인 팔다리도 셀 수 없이 잘랐단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니까 반군 지도부가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명령에 불복하면 죽인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다시 전쟁이 나면 또 반군에 합류할 거냐고 물었다. 절대 아니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우리에게 놀랍게도 그는 “그렇다”고 했다. 전쟁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녀 일자무식이라 앞으로도 아무 희망이 없으니 힘있는 곳에 기대어 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37도가 넘는 맹벌 아래였는데도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잔악한 가해자로만 여겼던 소년병도 뒤집어보니 명백한 피해자구나. 전쟁의 전모와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나는 어떤 전쟁도 예사롭게 볼 수 없을 것 같다. 언론에서 전하는 최신무기의 성능과 전과의 수치 뒤에는 이런 무고한 아이와 여자들, 가해자이자 피해자들이 있

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어떤 명분도 피해갈 수 없는 전쟁의 또 다른 얼굴이다.

출처: '한겨레신문' 2003년 4월 14일자.

아프간 여성이 말하는 전쟁 : 그 슬픈 이야기

살레마(RAWA의 지지자)

2000년 7월 17일 카불에서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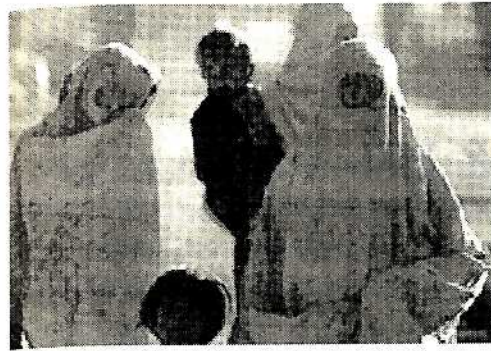
오, 나의 자매여, 어떻게 나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의 놀라움, 나의 쓸쓸함과 외로움, 아니 나의 정처없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당신은 내가 내 가슴으로부터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끌어내기를 바라나요?

나의 이름은 비비 케스바(BiBi Keshvar)입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은 압둘이고 사람들은 그를 압둘라라고 부릅니다. 내 나이는 40-43세 정도입니다. 내 남편은 자하드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는 돈스그히파야 지역에서 15살, 18살 난 두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땅을 일구어, 포도를 심고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포도를 팔아서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탈레반과 아마드 사 마수드(Ahmad Shah Masoud)의 두 집단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집과 땅을 잃고, 카불로,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맨손과 맨발로 말이죠. 지금 우리는 좁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탈레반은 여성들과 노인들을 자라라바드로 보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망을 쳤고, 그들은 탈레반 집단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내 여동생 파타네는 실종되었는데, 어머니는 그녀를 찾고 찾았지만 동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몇몇 소녀들이 오르곤 지역으로 보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프간 여성이 말하는 전쟁 : 그 슬픈 이야기



A. Raffaele Ciriello
ciriello.com

양탄자와 물레, 소를 모두 값싸게 팔아서 여동생을 찾으러 떠날 충분한 돈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을 찾기 위해 오르곤으로 갔습니다. 오르곤에서 우리는 여동생을 찾지 못했고 굴다레 지역에서 온 또 다른 소녀 지바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은 골누르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탈레반 집단이 그녀를 오르곤으로 데려와, 그녀를 한 유부남에게 팔았고, 그래서 지금 그녀는 그의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그녀의 가족에게 그녀가 지금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는 중입니다. 나는 겨울에도 신을 신발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집을 청소하고 허드렛일을 하고 그 일로 버는 빈약한 수입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다른 두 가족은 러시아 대사관에서 삽니다. 우리는 유엔의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우리 여성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계 유지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정 자선단체가 우리를 돕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그들의 평판 때문이지요. 어떤 조직들도 난민을 돕지 못합니다. 우리는 도움 없이 굶주린 채 남겨져 있습니다. 신조차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저기를 방랑합니다, 이 집 저 집을 떠돌아 다닙니다. 지금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농촌에서 삽니다.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삽니다.

(번역 : WAW번역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편지

살레마(RAWA의 지지자)

이 편지는 2001년 10월 21일 카불의 Fariba라는 이름의 여성으로부터 아프간여성혁명연합(RAWA)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지금 이 곳 카불은 예전보다 훨씬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에 걸친 미국의 폭격은, 카불 전 시내를 뒤덮는 거대한 검은빛 구름을 퍼뜨리며, 참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폭격소리는 어느 곳에서나 들려옵니다. 이 곳은 수일 동안 점점 늘어만 가는 방랑자 거지들을 만날 수 있는 애통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내 외의 사업들은 문을 닫았고, 그나마 낮은 수준의 임금도 지급이 중지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탈레반의 지도자인 무라 오마르는 탈레반 정부의 문제 때문에, 식량 배급을 40,000 아프가니에서 20,000 아프가니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12 락스 아프가니를 받았던 노동자는 이제는 6 만크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4달 동안 받지 못했던 봉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업은 음식 사업뿐입니다.

사람들의 이동 물결은 이전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났고, 사람들은 이 곳 저 곳을 떠돌곤 합니다. 시내에는 더 이상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음식의 가격은 내려갔지만,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살 능력도 없습니다.

시내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탈레반과 파키스탄, 아랍, 체첸 사람들은 창백하고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폭음은 지금까지 오랜 동안 여기저기서 들려 왔고, 몇몇의 집들은 미사일에 폭격을 당했습니다.

10월 14일, "칼라-에-바킬"이라는 이름의 예보 건물이 모인 지역에서, 샤말리 골짜기에서 카불로 이주한 다쿠다의 집이 미사일 피해를 입었습니다. 18살의 그의 딸은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은 심한 부상을 당하여, "바지르 아크바 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 병원에는 더 이상의 수술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 근처에, 여섯 개 이상의 집들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열다섯 개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10월 14일, 텔레비전 수신탑과 카불 공항은 수번에 걸쳐 표적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두 번째 폭격에서 이 수신탑을 파괴하여, 탈레반의 모든 통신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10월 15일 한밤중에, 공항은 다시 한 번 미사일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카트라 에 파완" 지역에 위치한, 공식적으로 "골랍 밧체"라 불리는 아랍인들의 병영도 폭격을 당했습니다. 탈레반 군사들과 아랍인들은 동료들의 시체를 숨긴 채, 그 집들을 버리고, 즉시 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탈레반 병영의 가장 핵심부가 위치한, 카불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가르에"라 불리는 지역은 몇 번에 걸쳐 공격을 당했습니다. 병영 315 역시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폭격되었습니다.

"케이르 카네"의 정상에 위치한 "바비드얀"이라 불리는 "간드 55" 병영 역시 미사일의 표적이 되었고, 이 공격으로 전선과 전신주가 피해를 입어, 전기 네트워크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에 공항에 가해진 새로운 공격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적십자 빌딩을 강타했습니다. 그 폭염은 시내 곳곳에서 폭격되었습니다. 탈진한 탈레반 소방수들은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50 미터 정도 떨어진 북부와 범안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집들은 또다른 미사일에 의해 폭격되었습니다. 40살의 여성이 죽음을 당했고, 두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성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소

지품들만이 망가진 채로, 잔해 안에 묻혔을 뿐입니다. 이 일은 오후 두 시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10월 17일, 첫 번째 폭격이 “네이더 칸” 위에서 일어났고, 전지역이 연기로 뒤덮혔습니다. 그 곳의 탈레반 포병대가 그 공격의 표적이었습니다. “군드 에 바바안”이라 불리는 병영 55가 미국의 폭격의 가장 큰 목표였고, 온 도시에는 숨막히는 공기가 퍼졌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작된 폭격은 한밤중에서야 그쳤습니다.

“데 카팍”과 “바담 바” 언덕의 고지대는 그 날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이고, 공항에도 몇 번의 연이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폭격 때문에, 공포에 질린 주민들은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10월 18일 새벽 3시 55분경, “로아 에 바바안”이라 불리는 군사 기지가 두 개의 폭탄에 의해 파괴되었고, 그 결과로 무기 저장고가 불탔습니다. 그 연기와 화염은 7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0월 18일 밤 12시, 카불 병영 315의 남부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샤 에 나우에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 폭탄은 폭발하지는 않았으나, 3개의 집들을 파괴하였고, 한 여성이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오전 11시, 구 마크로리안 지역의 구역 33에 또다른 폭탄이 투하되어, 14살 소녀가 죽음을 당하고, 4명의 아이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다른 폭탄은 칼라 에 자만 칸 지역의 집을 강타하여, 네 명의 여성과 한 어린 아이의 다섯 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구 마크로리안 지역의 구역 13에서의 또다른 폭발은 한 어린 소녀를 즉사시켰습니다.

10월 21일 오전 7시 58분, 마스에드 에 이테팍 지역 근처의 신계획 지역에서 대규모 폭탄이 폭발하여, 한 가족이 사망하고 세 집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사상자는 네 명의 여자와 네 명의 남자이며, 여덟 명의 다른 사람들이 같은 폭격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한 가족들은 카라 바 지역에서 카불로 옮겨 온 사람들입니다. 로이 터 통신의 기자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 다수는, 1992년에 그들이 경험했던 고통을 기억하며, 북부동맹의 군대가 탈레반의 몰락 이후 도시를 점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번역: WAW번역팀)

3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 59.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Katha Politt)
- 62. 복제된 포스터만큼 분노하거나 혹은 무감각하거나(타리)
- 70. 'fucking USA'의 어이없음(시타)
- 74. 결코 되돌아가지 않으리라(미나)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

Katha Politt

이 지구상에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놓인 이가 있을까? 빈곤과 기아, 질병, 가뭄, 파괴된 도시와 엄청난 수의 난민의 위기가 마치 충분한 비극이 아니라는 것처럼, 탈레반 정권 하에서 그들은 일할 수 없고, 학교에도 갈 수 없다. 그들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남자와 동행하지 않고서는 집 밖을 나설 수 없고, 터져 나오는 기침을 막으려고 그들의 의무적 의상인 부르카를 잠시 들기만 하여도 길거리에서 매질을 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탈레반의 더 정신 나간 규제들은 마치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규정들이 그랬듯이 집착에 가까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테면, 또각또각 소리가 정목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하이힐을 신을 수 없고, 깃발의 색깔과 같은 하얀 양말 역시 신을 수 없고, 그리고 어떤 남성 통행자도 집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숨어지내는 여성들의 형상을 볼 수 없도록 창문은 어떻게 페인트칠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규제는 여성이 입어야 하는 의상인 부르카와 함께, 영양 실조와 햇빛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일종의 뼈질환을 발생시켜 왔다.

9월 11일 이전, 이러한 상황은 서구로부터 미미한 주목을 받았을 뿐이었다. 바미안 석불의 파괴가 끝났던 주목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좌익”은 종종 “도덕적 상대주의”와 “포스트모던적인” 판단에 있어서 주저한다고 지적받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이 겪었던 곤경이 전통과 문화의 문제이며, 따라서 서구인들에 의해 판단될 성격이 아니라는 전제는 모든 정치적 성향을 통틀어 만연한 의견이다.

이제 드디어 세계는 탈레반에 주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파키스탄과 같은 그들의 외부 지지국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지금, 정권의 남은 날을 셀 수도 있을 지금 이 시점에 말이다. 종교적 광신과 여성억압의 연관성은 무척 명확해 보인다. 물론 이것이 이슬람교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주요 종교 중 여성의

열등성을 말하지 않고, 여성의 위험하고 전염성 있는 성적인 측면을 남성 지배 하에 놓는다는 신의 뜻을 중심 주제로 삼지 않는 종교가 있다면, 내게 보여 달라.

여성억압과 잔혹성, 테러리즘, 전쟁이 갖는 연관성 역시 명확하다. 수많은 이슬람 근본주의의 보병인 젊은 남성들이 여성을 배제한 종교학교에서 키워졌다는 사실,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의 모병 비디오가 비키니를 입은 젊은 서구 여성을 적의 상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근본주의가 미래가 없고 절박한 남성들에게 인류의 절반에 대한 즉각적 우월성을 확인시킴으로써 심리적이고 현실적인 만족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억압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여성 해방은 그 근본주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여성이 교육과 의료혜택을 받고 개인의 권리를 누리는 곳에, 그들이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힘을 가지는 곳에, 또한 그들이 무엇을 입고 누구와 결혼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곳에, 종교와 정치의 분리와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세력이 존재한다. 어떤 공적 삶을 누리는 교육받은 어머니가 그녀의 딸을 남편의 집 안에서 둘러싸인 네 벽 안에 갇힌 채, 얘기할 사람이라고는 그의 다른 아내들밖에 없는 문맹의 어린 아이로 남기를 바라겠는가?

여성의 권리 보장은, 영아사망률(네 명 중 한 명의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은 5세 이전에 사망한다), 정치적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그리고 서구 자신의 안전보장 같은 문제들과 함께, 서구가 신경 써 온 필수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 중동 지역에, 그리고 다른 이슬람 세계에 대한 토론장에서 여성의 모습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정책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남성들은 무기와 정부를 손에 쥐고 있다. 우리의 동맹자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에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에 탈레반 정권과 같은 규제가 가해질 때 그들이 어떻게 느낄지 그 누구라도 물어본 적 있는가?

아프가니스탄의 북부동맹은 서방세계에 그들을 여성의 친구로 내세우고 있다. 뉴

욕 타임스의 한 기사는 북부동맹 점령지구 하에서 여성들에게 교육받고, 일하고, 부르카에 비해 규제가 덜한 의상을 입을 수 있도록 한 제한적 허가 조치에 놀람을 표시한다. 여기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사실은 북부동맹의 많은 전사들이 그들이 정권을 잡았던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여성의 권리를 억압했던 바로 그 종교전사들이었다는 것 뿐 아니라, 그들이 온 나라를 내전으로 몰아넣고 인종적 이유의 집단살해와 강간, 잔혹행위를 자행한 기록이 쌓여 있으며, 그래서 급기야는 사람들에게 탈레반의 법과 질서에 대한 약속이 위안으로 느껴질 정도로 탈진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사실들은 모두 인권 감시 웹사이트(www.hrw.org)에 기록되어 있다.

탈레반과 북부동맹 모두를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며 여성혐오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온 아프가니스탄 여성 혁명연합 RAWA에 대한 주목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때이다. "아프가니스탄에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전쟁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을 방문중인 RAWA 대표 타흐미나 파리엘이 전하는 말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원조와 민주적 선거에 이은 탈레반과 북부동맹 모두의 무장해제이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적 정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덧붙인다. "우리는 이미 그걸 충분히 경험했다구요!"

RAWA의 여성들은 총으로 무장한 전사들과 다른 영웅의 모델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소녀들을 위한 학교들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의료기구를 전달하고, 탈레반 독재를 필름에 담고 자료로 남긴다. 파키스탄에서 그들은 '탈레반화 된' 도시 페샤와르와 퀘타에서 근본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다. 세계무역센터 공격의 희생자들이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비참한 상황에 놓인 자신의 국가에 이성과 평화를 가져다주려 노력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역시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RAWA를 후원하려면 웹사이트 www.rawa.org를 방문하라.

출처 : 「The Nation」 2001년 10월 22일

(번역: WAW번역팀)

복제된 포스터만큼 분노하거나 혹은 무감각하거나

-차별과 폭력에 대한 감수성에 기반한 문제제기와 실천을 위해

타리(WAW회원)

감수성에 대한 것으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고 분노한다는 것은 자신의 성찰적인 경험이나 사고에 기초한 것이고 그것은 무언가를 접했을 때 몸에서 '화학반응' 같은 것을 일으킨다. 그것은 글이나 말로 충분히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를테면 '몸에 부착된 언어' 같은 것을 포함한다. 여성의 경험 중 많은 것은 이러한 종류의 것들이다. 이것은 자주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라고 평가되어왔고, 이것을 토대로 발언하는 여성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마초들로부터 '꼴통 폐미'나 '폐미 파쇼'라고 딱지 붙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감수성이 소수자의 위치에서 발화될 때 그것은 소수자의 정치와 연관되어있고 자신의 언어가 부재한 세계에서 대항언어를 갖는데 토대와 동력, 지속성을 제공하며, 세계에 새롭고 대안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네요, 이러한 사진을 게시해야하는 이유가 뭐죠?"

"주한미군의 범죄가 심각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좀 보라는 것이죠."

"여론을 환기시키고 운동을 일으키려는 생각만 있고, 진정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 아닌가요?"

"시민들이 알고, 분노하고, 운동에 동참해서 SOFA나 불평등을 제거하는 게 피해자의 인권이지 무엇이 피해자의 인권입니까?"

"그럼 故윤금이씨 사진은 왜 걸려있는거죠?"

"그게 바로 11년이 지나도록 현실이 변한 게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의 참혹한 사진을 보아야 운동이 된다면 그게 과연 무엇인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성폭력 등으로 인해서 여성의 인권이 바닥인 상황에서 특히나 나란히 걸린 故윤금이씨 사진을 보며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단지 피해자의 사진이라고 걸어놓는 것을 보면 저는 여성으로서 수치심이 드는데요."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분리해서 사고하십니까? 그리고 저 사진은 가족들에게 다 동의를 받은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촛불시위에 참가했을 때에는 이미 대규모의 시위가 한풀 꺾이고 난 1월 중순이었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故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주최했던 그 집회에는 故신효순·심미선씨의 사망 당시 사진이 故윤금이씨의 사진과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그 사진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포스터로 대량 제작되어 전국적으로 배포된 이후였다. 지난 늦은 여름 지하철 역사에서 그 포스터를 처음 본 후 느꼈던 부당함과 불편함, 수치심은 1월 중순 촛불시위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고, 촛불시위 자리에서 내가 범대위 관계자에게 항의하는 위의 대하는 범대위 관계자의 편청으로 무마되었지만 안개 속에 있었던 나의 감정은 포스터 옆에 故윤금이씨 사진이 나란히 자리한 것을 보고 좀더 분명해졌다.

죽은 자는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금 죽은 사람의 사진을 걸고 넘어지는 것, 죽은 자의 인권을 말하는 것은 구천을 해매며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를 영혼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다만 죽은 자의 인권을 산 자의 것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통, 사회에서 죽은 자가 다루어지거나 평가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평가와 연속선에 있고 따라서 -죽은 후에 재평가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세

계의 절반을 공유해온 여성이 그 동안 가부장적 지배자들의 역사로 인해 평가절하되거나 비가시화 되어왔던 것처럼, 기억과 역사가 구성되는 것이며 정치적인 것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죽은 자의 인권은 현재 정당하고 가치 있게 평가되는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故신희순 · 심미선**씨나 **故윤금이**씨는 그렇지 않다. **故신희순 · 심미선**씨의 사망 당시 사진이 포스터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가족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현재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몸의 권리가 가부장적 가족 구조나 성문화에서 종속되고 왜곡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의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믿기 어렵다. 그것은 **故신희순 · 심미선**씨가 '꽃다운 나이의 우리 딸/동생'으로 불리거나 **故윤금이**씨가 '순결한 민족의 딸/누이'로 불려왔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녀들의 인권을 말하는 것은 그녀들이 연장자/남성에게 호명되는 위치에 고정되는 것을 반대하고 그녀들의 몸이 민족"으로 치환되어 민족의 치욕을 상징하는 것에 반대하며, 사망으로 인해 갑자기 희생자로 추대되어 그녀들이 살아있을 때에 당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온갖 차별과 폭력을 망각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포스터포스터포스터

하나의 재현물인 포스터는 제작자(집단)의 의도와 가치관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은 포스터가 가지는 효과를 어느 정도 규정한다. 표면적으로 그 포스터는 성별화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너무나 참혹하여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광경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무력했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음을 말하고 있다. 사건 정황에 대한 백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은 그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 피

1) 민족은 사회와 역사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한국의 혈통민족주의, 단일민족의 신화는 여성성의 통제를 기반으로 가능해왔다. 이러한 오랜 전통은 외세 침략과 전쟁속에서 여성에게는 민족의 자궁을 지킴으로써 혈통민족주의를 보존하는 의무를 부과해왔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일본군위안부', '기지촌여성' 등은 철저하게 사회에서 배제되어왔다. 또한 전쟁이나 무력갈등시에는 적의 여성을 유린함으로써 적의 집단이 가진 정체성을 파괴한다. (참고 김은실, 1994; 임지현, 1999; 김정미 · 정추영, 2001)

해자는 '여중생'이었고 기지촌여성이 아니었다.²⁾ 그럼으로써 **故윤금이**씨의 죽음과는 분리되었지만 참혹한 죽음을 당한 무력한 여성으로서의 의미는 공유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여성을 포함한 미군범죄의 피해자 중에서 왜 하필 포스터 옆자리에 **故윤금이**씨 사진이 선택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것은 곧 성별화된 피해자의 자리이자 여성의 자리였다.

수많은 성폭력, 아내폭력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하고, 폭력과 그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재현이 일상적인 사회에서 왜 그녀들의 모습은 분노를 일으키는가. 사람들은 '한 대 맞은', '한번 당한' 아픔과 상처에 대한 이해 없이 그녀들의 고통과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왜 누구는 그냥 '재수없'었고, 누구는 피해를 당했다. 그것은 그 포스터의 효과로 촉발시키려는 운동이 피해자와는 무관한 방식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³⁾

사건중심의 운동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일상적으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안보이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특수화시킨다. 특수화된 문제는 이제까지 민족주권과 미제국주의, 미군주둔, 불평등한 SOFA의 문제로 치환되었다. 물론 주권과 SOFA가 일상적인 삶과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당한 고통의 어떤 부분을 오려내어 전면에 붙이는 행위가 의도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분류해서 위계화하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에게 폭력을 당하는 것보다 한국인이 미군에게 폭력을 당하는 것이 더 위급하고 국가적인 문제라는 위계안에서 어쨌든 그녀들은 한국인이 되었지만, 안전하고 완전하게 편입되지는 못한다. 여전히 누이로, 딸로, 동생으로 불리워졌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지촌에서 한국인인 포주와 '손님 남성'에게 빛과 폭력으로 시달리다가 자살한 러시아 여성은 잊혀진다.

2) **故신희순 · 심미선**씨는 기지촌에 살고있었지만 기지촌여성으로 불리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기지촌여성'이라는 말은 기지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매매된 여성만을 가리키는 것이었나? 이상할 것도 없다. '성적으로 팔리는 여성'이라는 은유는 모든 사회에 일상적으로 퍼져있으니까.

3) 포스터로 재현된 충격적인 사진을 보고 미군범죄를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면 그 운동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폭력은 일상화될 때 무감각해진다. 여성에 대한 학대를 노골적으로 재현한 미술가의 작품이 시내한복판에 전시되고 수많은 강간과 구타의 피해자가 하루에도 수없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사회적으로 무감각한 것을 보면.